『大乘起信論』 번역의 제 문제

김진현(현석) *

목 차

Ⅰ. 序語
Ⅱ. 龍城震鐘의 『大乘起信論』의 번역 의도
Ⅲ. 『大乘起信論纂註』에 의한 百個 科目
Ⅳ. 『大乘起信論』 번역의 省略과 敷衍
Ⅴ. 結語

요 약

용성본 『대승기신론』은 전부 百個의 科目인데 '第六'이 두 번 중복되어 '第九十九'로 끝이 나 있다. 교정의 단순한 실수이나 눈에 띄게 드러난다.

또한 과목과 관련있는 오류로 '제2장-제3절-제1항 顯示正義'가 있다. 용성은 이 '顯示正義'를 '三者난 道相을 發趣함을 分別하야 正義를 顯示함이니라'라고 하여 제3항 '分別發趣道相' 에 연결했다. 백개의 과목만으로 나열시킨 폐단이라고 할 수 있다. '서분, 정종분, 유통분' 등 고래의 정통 분류법과 함께 배치하면 오류도 없애고 전체 단락의 이해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제3항은 '도에 나아가는 모습을 분별함' 이라고 풀이해야 할 것이지만 '道相을 發趣함을 分別하야'라고 오역했다.

과목에 이어서 『대승기신론』 본문과 관련된 내용을 보자. 용성의 경전 번역에 대한 특징은 '부연과 생략 및 축약'이다. 제5, 6, 16 과목 본문에서는 『대승기신론찬주』의 내용을

* 해인사 승가대학 교수사
대한불교 조계종 교육원 교육아사리

『대승기신론』과 구분없이 부연했다.

일제 강점기에 출간된 용성본 『대승기신론』이 '생략과 부연'의 집필로 『대승기신론』 자체에 손을 된 것은 큰 문제점으로 독자들에게 혼선을 초래할 소지가 다분하다. 그러나 이 '생략과 부연' 부분을 괄호 처리하여 구분하고, 용성본 『대승기신론주해』라고 한다면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용성은 단순히 『대승기신론』을 번역만 한 것이 아니라 『대승기신론주해』를 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Ⅰ. 序語

龍城震鐘(1864-1940)이 한글로 번역한 馬鳴菩薩의 『大乘起信論』은 서인도 출신의 眞諦 삼장(499-569)이 중국의 건흥사에서 1권으로 한역한 구역이다. 아울러 진제가 번역한 『섭대승론』은 그의 입적 후에 섭론학파로 대성되도록 한 토대가 되기도 했다.

현재 조선후기 백암성총이 편집한 『大乘起信論疏筆削記會編』이 내려오고 있다. 이 책에는 법장이 서술한 疏와 당대 종밀이 기록한 疏注論, 송대 장수법사 자선이 기록한 記가 수록되어 있다. 『大乘起信論疏筆削記』는 법장의 견해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당시 조선후기 불교계에는 법장의 견해가 어느 정도 보급되었음을 짐작하게 한다. 이러한 불교계의 상황이 답습되었든가 아니면 더 퇴보되었음직한 일제 강점기인 20세기 초에 용성진종이 『大乘起信論纂註』를 입수하고 또한 그 내용을 활용한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로 보인다.

지금까지 龍城震鐘의 번역[1]에 대한 연구로는 보광스님이 선구적인 역

1) 보광, 「용성선사의 역경사업이 갖는 현대적 의의」 『다보』 6 (서울: 대한불교진흥원, 1993). ; 한보광, 「백용성스님의 역경활동과 그 의의」, 『대각사상』5, 서울: 대각사상연구원, 2002. ; 한보광, 「백용성스님의 삼장역회의 설립과 허가취득」, 『대각사상』9, 서울: 대각사상연구원, 2006. ; 김광식, 「대각교의 조선불교 선종총림으로의 전환」, 『용성조사와 고암대종사의 생애와 사상』, (서울: 대각사상연구원, 2013). ;

할을 해왔다. 1993년에 「용성선사의 역경사업이 갖는 현대적 의의」를 필두로, 2002년에 「백용성스님의 역경활동과 그 의의」, 2006년에 「백용성스님의 삼장역회의 설립과 허가취득」을 발표하여 용성의 역경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켰다. 이와 더불어 2000년에는 김광식의 「백용성의 불교개혁과 대각교운동」이, 2013년에는 「대각교의 조선불교 선종총림으로의 전환」이 있었다. 본 논문에서는 용성진종의 『대승기신론』 번역 상 제 문제들을 고찰하고자 한다.

Ⅱ. 龍城震鐘의 『大乘起信論』의 번역 의도

용성은 1919년 기미년 독립선언서 발표의 일로 경성서대문 감옥에서 3년간 옥고를 치르면서 각 종교 신자들이 신청하여 보는 종교서적들이 모두 한글로 되어 있음을 보고 통탄하여 원력을 세웠다. “오동나무 잎 하나가 떨어짐을 보고 천하의 가을 됨을 아는 것이니 세계에 인류는 생존을 경쟁하고 경제의 과탄은 극도로 되어 가는 시대에 누가 한문에 뇌를 썩여서 수십 년의 세월을 허송하며 공부하리오. 비록 수십 년을 공부할지라도 한문을 다 알고 죽는 자는 없을 것이다. 다 통달한다고 할지라도 장래에는 무용의 학문이 될 것이니 무엇에 쓰리오. 현금 철학이나 과학이나 천문학이나 정치학이나 기계학이나 모든 배울 것이 많은 시대에 한문만을 가지고 수십 년의 세월을 허비하는 것은 어리석을 뿐만 아니라 또한 문명발달의 장애물만 될 것이다. 또 수십 년 동안 한문공부를 하여서 큰 문장이 되었다 할 지라도 우리 종교의 진리는 알지 못할 것이다. 또 중국 사람들은 중국글을 좋아하나 우리 조선 사람들에게는 조선글이 적당할 것이니 남녀 상중하가 보면 즉시 아는 것이라 보급되기 편리하리니 내가

김광식, 「백용성의 불교개혁과 대각교운동」, 『대각사상』3, (서울: 대각사상연구원, 2000).

만일 출옥하면 즉시 동지를 모아서 경 번역하는 사업에 전력하여 이것으로 진리 연구에 한 나침판을 지을 것이다."[2]

보광스님은 용성의 역경사업의 의미를 민족의 혼을 일깨우는 일로 보았다. "시대적인 변화는 이제 더 이상 한문 경전만으로 불경을 널리 보급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되었다. 한편 그의 일거수 일투족은 민족의 독립운동과 무관한 것이 없다. 용성은 역경사업을 바로 우리글 우리말의 보급에 있어서 중요한 일이며, 민중의 어리석음을 깨우쳐 민족의 혼을 일깨우는 일로 보았다. 그러므로 당시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역경사업을 전개하였다."[3]더불어 우리의 말과 글을 보존하려는 일환으로 본 견해도 있다. "불교의 일대혁신의 모체로 대각교를 창립하는 한편 삼장역회를 만들어 경전의 우리말 번역에 전념하였으니 이는 우리의 말과 글을 없애려는 일제의 마각을 예견하였기 때문이다."[4]

그러나 용성이 신유년 삼월에 출옥한 뒤 한글 번역에 대한 불교계의 분위기는 부정적인 경향이 강했다. "협의하였으나 한 사람도 찬동하는 사람은 없고 도리어 비방하는 자가 많았다."[5]는 것은 오랫동안의 한문류 불경의 구태에 젖어있는 불교계의 상황을 신랄하게 반영한 표현이다.

용성의 『한글화엄경』이 간행된 것이 정묘년(1927년) 11월 13일이다. 이 책의 「저술과 번역에 대한 연기」에 의하면 당시 『대승기신론』은 아직 인쇄되지 못했다[6]고 한다. 이 기록에 의하면 용성의 『대승기신론』 출판은 1928년 이후의 일이라 할 수 있다. 용성의 역경은 당시 시대 사조를 관찰하면서 구체적으로 전개된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용성이 역경과 저술

---

2) 경전중간사업회편, 『한글화엄경』4 (서울: 경인문화사, 1970). pp.1634-1635.

3) 한보광, 「백용성스님의 역경활동과 그 의의」, 『대각사상』5, 서울: 대각사상연구원, 2002. p.121.

4) 김광식, 「대각교의 조선불교 선종총림으로의 전환」, 『용성조사와 고암대종사의 생애와 사상』, (서울: 대각사상연구원, 2013). p.58.

5) 경전중간사업회편, 앞의 책. p.1635.

6) 경전중간사업회편, 위의 책, p.1637.

이라는 방편으로서 포교의 대중화를 시도한 것은 단지 이교도의 경전을 보고 착안한 것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었다. 요컨대 그 전환은 당시 시대 사조를 관찰하고 아울러 지금껏 자신의 수행방법과 일반 중생들의 수준을 함께 성찰한 연후에 나온 것이라는 점이다."[7]

또한 체계적인 역경으로 삼장역회가 설립되기도 했다. "용성선사의 역경활동의 의의는 여러 가지로 평가할 수 있으나 먼저 한글 번역에 있어서 체계화를 시도하였다는 점이다. 그는 출옥과 더불어 가장 먼저 삼장역회를 설립했다."[8]

용성의 『대승기신론』 번역 의도와 아울러 용성이 의용한 『대승기신론찬주』 저자의 의도도 아울러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는 2권으로 明나라 절강성 가흥 남서쪽의 攜李란 곳의 沙門 眞界가 纂註했다. '纂註'는 '모아서 주석을 단다'는 의미이다. 진계는 이전에 『능엄경』 도 纂註하여 『楞嚴經纂註』 10권을 남겼었다.

진계에 대한 전기가 상세하지는 않다. 『新續高僧傳』 권6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기록이 실려 있다. "진계의 字는 幻居요, 휴리 사람이다. 吳申(中)에 와서 南屛松壽堂에 머물면서 『금강경』을 주해했다. 고금 百家의 주석에 지취가 없는 것을 보고 홀로 조사의 뜻을 알아 주석을 달았다."[9]

"다만 문장을 나누고 뜻을 분석할 것이다. 과목 나눈 것이 너무 번다하니 소와 기에서 합당하지 않은 것이 첨가되었다. 책을 펴서 읽는 자들이 총체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울까 걱정이 된다. 그대는 능히 번다함을 버리고 간략함을 따라 소와 기를 융합할 것이다."[10] 용성은 『대승기신론찬주

---

7) 김광식, 「백용성의 불교개혁과 대각교운동」, 『대각사상』3, (서울: 대각사상연구원, 2000). pp.75-76.

8) 한보광, 「백용성스님의 삼장역회의 설립과 허가취득」, 『대각사상』9, (서울: 대각사상연구원, 2006). p.64.

9) 喩昧菴, 『新續高僧傳四集』 (臺北: 琉璃經房. 1967). p.175. 眞界字幻居 肴攜李人 亦來吳申 棲止南屛松壽堂 註解金剛經 視古今百家註 無當旨者 獨會祖意而爲之註."

』의 바로 이러한 취지와 그 내용을 살피면서 『대승기신론』 번역에 의용했다. 이러한 의미에서 용성이 번역한 『대승기신론』은 단순한 번역본이 아니라 註와 敷衍 설명까지 곁들인 용성진종의 『대승기신론주해』라고 할 수 있다.

Ⅲ. 『大乘起信論纂註』에 의한 百個 科目

용성본 『대승기신론』의 과목은 '第九十九'로 끝이 나 있지만 자세히 살피면 '第六'이 두 번 중복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두 번째 나온 第六부터 번호를 바로 잡으면 전부 百個의 科目'이 된다.

『대승기신론』의 정통 분류 방법인 '서분, 정종분(제1부 인연 부분 등), 유통분'의 구성 속에 용성스님이 명나라 진계의 『대승기신론찬주』에 의한 100개의 조를 배대시키면 다음과 같다.

제Ⅰ장 서분
제Ⅱ장 정종분
  제1절 인연 부분 [1-3] 말씀을 일으킨 이익을 밝힘
  제2절 뜻을 세우는 부분 [4]
  제3절 해석하는 부분
    제1항 바른 뜻을 나타내 보임 [5 …62]
    제2항 삿된 집착을 다스림 [63…69]
    제3항 도에 나아가는 모습을 분별함
        제1목 믿음을 이룬 발심을 밝힘 [70…78]
        제2목 앎과 실천을 이룬 발심 [79]
        제3목 깨달음의 발심 [80…84]

---

10) 眞界, 『大乘起信論纂註』 (『속장경』 45책 p.366중-하). "但分文析義。科節太繁。加以疏記未合。恐披覽者難爲融會。子能去繁就簡。融合疏記."

제4절 수행을 하여 신심을 이루는 부분 [85…98]] 앞의 하열한 근기에 의해 신행을 밝힘
제5절 이익을 권해 닦게 함[99, 100]
제Ⅲ장 유통분- 회향 게송

이 중 제Ⅰ장 서분[11]에 해당하는 부분은 용성 번역본에서 생략되었다.

제Ⅱ장 정종분에 해당되는 내용은 제1절 인연 부분, 제2절 뜻을 세우는 부분, 제3절 해석하는 부분, 제4절 수행을 하여 신심을 이루는 부분, 제5절 이익을 권해 닦게 함의 다섯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이 중 제3절 해석하는 부분은『대승기신론』 전체의 3/4을 차지한다. 이에는 제1항 '바른 뜻을 나타내 보임'과 제2항 '삿된 집착을 다스림'과 제3항 '도에 나아가는 모습을 분별함'이 있다.

과목과 관련있는 오류로는 "次에 解釋分을 說할이라 三種으로 解釋호리니 一者난 正義를 顯示함이오 二者난 邪執을 對治함이오 三者난 道相을 發趣함을 分別하야 正義를 顯示함이니라 一心을 依하야"[12]라는 부분이 있다.

이는 문장을 "一者난 正義를 顯示함이오 二者난 邪執을 對治함이오 三者난 道相을 發趣함을 分別한다."라고 끝을 맺은 뒤, "(一者) 正義를 顯示함은 一心을 依하야"라고 했어야 한다. 이 중 '顯示正義' 부분은 '제3절 해석하는 부분'의 2/3에 해당하는 분량이며,『대승기신론』 전체의 1/2이다. 해당되는 용성의 백개 과목은 제5조부터 제62조까지로 역시 절반 이

---

11) 馬鳴,『大乘起信論』(『대정장』 32책 p.564. "歸命盡十方 最勝業徧知 色無礙自在 救世大悲者 及彼身體相 法性眞如海 無量功德藏 如實修行等 爲欲令衆生 除疑捨邪執 起大乘正信 佛種不斷故. ; 시방에서 가장 뛰어난 업으로 두루 아시며 색에 걸림이 없이 자재하시며 세상을 건지시는 대비하신 분과 그 몸의 바탕과 모습인 법의 성품 진여의 바다와 한량없는 공덕들과 실다운 수행자들께 목숨바쳐 귀의합니다. 중생들로 하여금 의혹을 없애 삿된 집착을 버리고 대승의 바른 믿음을 일으켜 대각의 종자가 끊어지지 않게 하고자 합니다."

12) 백상규, 위의 책, p.192.

상임을 알 수 있다. 이 '顯示正義'를 '三者난 道相을 發趣함을 分別하야 正義를 顯示함이니라'라고 하여 '제3항 도에 나아가는 모습을 분별함' 에 연결했다. 정통 분류법을 무시하고 백개의 과목만으로 나열시킨 폐단이라고 할 수 있다.

앞서의 제3항 分別發趣道相은 '도에 나아가는 모습을 분별함'이라고 풀이해야 할 것이지만 '道相을 發趣함을 分別하야'라고 오역했다.

용성의 제7 明得入眞如之方은 '設問答以明隨順得入眞如之方也[13]'를 축약한 표현이다. 이어서 『대승기신론찬주』의 11. 明心生滅義[14]이 용성본에는 '明生滅心義'로 잘못 기재되었다. 또한 14. 明所覺四相不同을 용성은 '明所覺四相'으로 줄였다.

이어진 18. 先顯離念名覺。次明有念, 20. 徵釋滅相顯性之義[15]의 부분들을 용성은 18. 明離念有念으로, 20. 釋滅相顯性之義로 줄이면서 축약의 특징을 보였다.

다음으로 원문의 21. 牒釋不思議業相,[16] 23. 總徵別釋如實空鏡, 24. 標釋因熏習鏡 25. 標釋法出離鏡, 26. 標釋緣熏習鏡의 부분들을 용성은 역시 釋不思議業相, 釋如實空鏡, 釋因熏習鏡, 釋法出離鏡, 釋緣熏習鏡 등으로 축약했다.

이어서 『대승기신론찬주』의 28. 依不覺故 生三種相, 29. 徵釋緣生之相而結末歸本, 30. 引喩以明覺與不覺同異之相[17]의 내용을 용성은 依不覺 生三種相으로, 釋緣生之相 而結末歸本으로, 明覺不覺同異之相으로 축약해 옮겼다.

---

13) 백상규역, 『大乘起信論』(서울: 대각교중앙총본부, 1930년), p.193. ; 『大乘起信論纂註』(『속장경』 45책 p. 340c).

14) 眞界, 『大乘起信論纂註』(『속장경』 45책 pp. 341c-342a). ; 백상규역, 위의 책, pp. 194-195.

15) 眞界, 위의 책, pp. 343a-344a. ; 백상규, , 위의 책, pp.196-197.

16) 眞界, 위의 책, p. 344a-b, 345a. ; 백상규, , 위의 책, pp.198-199.

17) 眞界, 위의 책, p.345a-345c, 346a-b. ; 백상규, , 위의 책, pp.199-200.

마찬가지로 다음의 33. 徵釋生滅之義 以明諸法由心生滅[18]에 대해 용성은 '徵釋生滅之義 以明由心'으로 달리 축약했다. '生滅'이 반복되어 생략했을 것이나 축약이 심해 원문을 보아야 구분할 수 있을 정도이다.

이어서 36. 徵明難知所以 卽釋不變無明二義[19], 37. 詳示依位離惑染相 廣明還滅因緣, 39. '此示染心無明爲礙 障智之相不同', 40. 明生滅之相 以釋立義分中是心生滅相 등의 내용이 이어진다. 역시 용성은 釋難知所以 釋不變無明二義, 詳示離惑染相 廣明還滅因緣, 明生滅相 釋立義分中心生滅相 등으로 축약하여 활용했다.

여기서 특기할 것은 진계는 『대승기신론찬주』 매번 '此-'라는 표현을 했지만 용성이 그대로 인용한 경우는 제39의 경우가 거의 유일하다. 더불어 어조사 '也'는 전부 생략하여 간결형을 우선시 했다.

다음 원문의 내용인 42. 廣明卽申前生滅中染淨相熏[20]을 용성은 '廣明申前生滅中染淨相熏'로 역시 축약하여 활용했다.

또다시 이어지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46. 別明妄心熏習進趣之遲速, 48. 設問答以明眞熏平等 信解修證之不等[21]등의 내용에 용성은 別明妄心熏習進趣遲速, 設問答明眞熏平等 信解修證不等 등으로 축약하여 활용했다.

다음으로 『대승기신론찬주』의 52. 依二力以明體用相應未相應[22]53. 明染淨斷不斷義, 54. 明眞如體相 以釋立義分中能示摩訶衍自體相, 55. 明德相差別卽無差別와 같은 내용들이 있다. 이들 가운데 용성은 依二力明體用相應未相應, 明眞如體相 以釋立義分中示摩訶衍自體相 등으로 축약했다. 제55는 '問答을 設하여 써 德相의 差別이 無差別임을 밝힌 것이다'로 정리하는 것이 더 타당할 것이나 용성은 간략함을 우선시하여 문답을 생략했다.

---

18) 眞界, 위의 책, pp.346b-c, 347b-c. ; 백상규, , 위의 책, pp.201-203.

19) 眞界, 위의 책, pp.348a-b, 349a-b. ; 백상규, , 위의 책, pp.203-204.

20) 眞界, 위의 책, pp.350a-c. ; 백상규, 위의 책, pp.205-207.

21) 眞界, 위의 책, pp.351b-352c. ; 백상규, 위의 책, pp.207-209.

22) 眞界, 위의 책, pp.353a-354c. ; 백상규, 위의 책, pp.210-212.

53의 '明染斷不斷義'의 경우에는 '淨'이 누락되었다.

다음 『대승기신론찬주』의 내용인 59. 重明報應之用不同 亦顯法身離於用相[23]을 용성은 '重明報應之用不同 又現法身離於用相'으로 원문의 '亦顯'을 '又現'으로 변용했다.

『대승기신론찬주』의 73의 경우는 원문에 '設問答以 明理一惑異 須修衆善' 즉 '問答으로써 이치는 하나이지만 미혹이 다르니 모름지기 온갖 선을 닦아야 함을 밝힌 것이다'고 한 '문답'의 필요성이 있지만 용성은 역시 단축형을 우선시 하여 '設問答以'을 생략했다.

이어지는 『대승기신론찬주』인 '77. 明菩薩示生脩短自在', '78. 先引權說。次顯實德'[24] 내용 중 용성은 제77의 菩薩을 正士로 변형했고, 78은 역시 '先權後實'로 축약했다.

다음은 역시 『대승기신론찬주』의 내용이다. 89. 令依靜坐以修止, 90. 令依餘緣以修止.[25]이들 내용에서 용성은 사역형 '令'을 생략하면서 依靜坐以修止, 依餘緣以修止 등으로 과목을 삼았다.

이어지는 『대승기신론찬주』의 내용인 95. 擧偏修之失 而勸修四觀,[26] 100. 擧謗毁之罪 而結信勸修에 있어서 용성은 접속사 '而'를 그대로 생략하면서 과목을 삼았다.

Ⅳ. 『大乘起信論』 번역의 省略과 敷衍

용성은 양산의 천성산 내원사에서 1926년 『한글화엄경』 번역에 착수한 머리말에서 경전 번역에 대한 태도를 밝혔다. "글뜻을 부루어 번역하기도

---

23) 眞界, 위의 책, pp.355a-355c, 356a. ; 백상규, 위의 책, pp.213-215.

24) 眞界, 위의 책, pp.360a-c, 361a-c. ; 백상규, 위의 책, pp.221-224.

25) 眞界, 위의 책, pp.362a-362c, 363a-363c. ; 백상규, 위의 책, pp.225-227.

26) 眞界, 위의 책, pp.363c-366a. ; 백상규, 위의 책, pp.228-234.

하고 번만한 것을 삭제하고 간단한 뜻으로 번역하기도 하고 중송은 빼고 고기송만 번역하기도 하였으니 그리 알고 보시오."[27] 여기서 용성의 경전 번역에 대한 분명한 특징은 '부루어 번역하기도 하고 번만한 것을 삭제하고 간단한 뜻으로 번역하기도 하고'라는 것으로 곧 '부연과 생략 내지는 축약'이다.

이러한 태도는 『조선어능엄경』의 번역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오권 이하로는 그 요점만 들어 번역하고 그 번거한 것은 삭하야 번역하지 아니 하얐으니 보는 사람은 그같이 양해하여 주시옵"[28] 보광스님은 용성의 경전 번역상 이러한 특징을 "완전한 의역, 경전의 내용이 반복해서 거듭 설명되는 부분이나 진리와 상관없는 번거로운 부분들은 과감히 삭제하거나 또는 그 뜻만을 간략히 요약하였다."[29]라고 정리하고 있다.

보광스님은 용성의 역경과 저술활동의 의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과감한 번역으로 문어체의 경전을 대화체로 바꿈으로 인하여 마치 부처님과 직접 대화하는 것과 같은 느낌을 받도록 하였다. 특히 경전에서 사용되던 단어를 새롭게 정리하였다. 조선시대의 배불정책으로 부정적으로 인식되던 불교용어들을 새로운 단어로 사용함으로써 새로운 이미지로 부각시키려고 노력하였다."[30]여기서 '새로운 단어로 사용'은 『대승기신론』에 나오는 부처님이나 보살의 표현을 용성이 대각이나 정사로 바꾸어 사용한 것을 의미한다.

우선 생략을 살펴보자. 용성은 가장 먼저 제Ⅰ장 서분 부분을 생략했다. 본론 이해에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듯하다. 또 '제 6 심진여의 뜻을 밝힘' 과목 끝의 내용이 다 빠졌다.

---

27) 경전중간사업회편, 앞의 책. pp.1-2.

28) 용성진종, 『조선어능엄경』(서울: 대각회출판부, 1990). p.169.

29) 보광, 「용성선사의 역경사업이 갖는 현대적 의의」 『다보』 6 (서울: 대한불교진흥원, 1993). p.187.

30) 한보광, 「백용성스님의 역경활동과 그 의의」, 『대각사상』5, 서울: 대각사상연구원, 2002.

> 왜냐 하면 일체의 말은 임시적인 이름일 뿐 실체가 없고, 다만 허망한 생각을 따른 것이지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다. 진여라 말한 것도 모습이 없다. 이르자면 말의 궁극은 말로 인해 말을 버리는 것이다. 이 진여의 바탕은 버릴 것이 없으니 모든 법이 다 '진'실하기 때문이다. 또한 내세울 수도 없으니 모든 법이 다 '여'여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모든 법은 말로 할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기 때문에 진여라고 이름했음을 알 것이다.[31]

위의 부분은 생략이라기 보다 누락이라고 보여지는 듯하다. 그러나 용성의 경전 번역 태도에서 '생략 내지는 축약'은 큰 의미를 차지하지 않는 듯하다. 그의 표현대로 '번거로운 부분들은 과감히 삭제'한 것이다.

이후 본문에서 상투적으로 생략한 부분들이 많이 나타난다. 가령 제5과목을 보자. "일심법을 의지하여 [누락: 두 가지 문이 있다. 무엇이 둘인가? 첫째는] 심진여문과 [둘째는] 심생멸문이 있다."[32] 여기서는 '두 가지 문이 있다'는 부분과 이어진 '무엇이 둘인가?'라는 구절도 본문에 자주 나온다. 사실 이 구절을 생략해도 의미 전달에 차이는 없어 무난하게 보인다. 제29과목의 "경계의 반연이 있기 때문에 다시 여섯 가지 모습을 낸다. [생략: 무엇이 여섯 가지인가?] 첫째는 분별하는 모습이니"[33]에서 '무엇이 여섯 가지인가?'도 마찬가지이다.

제30, "또 다시 깨달음과 깨닫지 못함에 두 가지의 모습이 있다. [무엇이 두 가지인가?] 첫째는 같은 모습이요, 둘째는 다른 모습이다."[34]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제32. "이 의에 다시 다섯 가지 이름이 있다. [생략: 무

---

31) 백상규, 앞의 책, p.193.

32) 백상규, 위의 책, p.192. "顯示正義者 依一心法 有二種門 云何爲二 一者心眞如門二者心生滅門"

33) 백상규, 위의 책, p.200.

34) 백상규, 위의 책, p.201.

엇이 다섯인가?]”[35] 제37, 40, 42, 44, 46, 47, 50, 52, 58, 63, 64, 70,72, 74, 85, 94 등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이와 유사한 것으로 제 99, “이미 수행하여 신심을 내는 부분을 말하였으니, ‘다음으로’ 수행을 권해 이익케 하는 부분을 말하겠다.”[36]라는 내용 중 ‘다음으로’라는 부분도 용성의 축약형의 번역 태도를 보여준다.

제5 ‘心眞如者。卽是一法界大總相法門體心眞如’[37]의 경우에는 ‘是’를 ‘時’로 오기하기도 했다.

다음으로 용성이 번역한 『대승기신론』의 본문에 나오는 부연은 註와 解, 곧 ‘부연 주’와 ‘부연 해설’로 나눌 수 있다고 하겠다. 용성이 직접 괄호 안에 ‘註’ 처리를 한 것은 별개이다. 여기서 ‘부연 주’와 ‘부연 해설’ 그리고 용성이 직접 괄호 안에 ‘註’처리를 한 내용의 객관적인 구분은 분명치 않다. 하지만 ‘부연 주’와 괄호 안의 ‘註’는 사전적이거나 앞서 문장을 환기시키는 내용 등의 단문이다. 이와 달리 ‘부연 해설’은 주로 장문이 많고 용성이 독자들을 이해시키고자 한 고구정녕한 풀이가 담긴 내용으로 보인다. 또한 특기할 것은 『대승기신론찬주』 부연인데 이에 대해 살펴보겠다.

대승기신론찬주』의 부연은 제5, 6, 16 과목에서 나온다. ‘제 5 해석 장부문을 전체적으로 나타냄’ 부분에서 용성의 번역을 살펴보자.

> 是心이곳一切世間과 出世間을總攝하니라 一切 對對가無한 一心이 眞如門과生滅門을 具하엿쓰니 眞如門은不變義요生滅門은 隨緣義-니라 不變故로生滅과 染淨과一切名相이無하고隨緣故로一切依正과因果等이轉變하며 德相과報用이業을隨하여現前하되 眞如난온전이生滅의眞如요 生滅은 온전히眞如의生滅인故로[38]

---

35) 백상규, 위의 책, p.201.

36) 백상규, 위의 책, p.233. “已說修行信心分일새 次說勸修利益分.”

37) 眞界, 앞의 책, p.339c.

38) 眞界, 위의 책, p.339b. ″是心則攝一切世間出世間法也。夫心本是一。而有眞如生滅

위의 번역문을 그대로 보자면 띄워 쓰기가 거의 고려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써 以', '이 是'를 용성은 한자 그대로 사용한다. 그러면서도 의역과 부연을 한 특징을 보인다. 다음으로 '제 6 심진여의 뜻을 밝힘' 내용을 보자. "이것은 算數의 一이안이라 諸數를 破하기 爲하여 强稱한 것이니라. 一法性이 萬法을 攝入하는 故로 法門體라 함이니라.[39]"이 구절에서 용성은 한글 번역의 시도를 많이 했다.

> 大蓋 智相은 諸法上에 分別을 任運하고 相續相은 念念이 分別을 繼續하여 外境에 住하여 法執에 堅住하거든 能見과 能現의 二가 곳 智相과 相續相이 自體性이 無함을 了達치 못하야 見相에 住하나니 今에 四種相이 自體性이 無함을 覺하여 其四相이 覺智를 隨하여 頓亡하는 故로[40]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용성은 독자의 가독성을 위해 부연한 흔적을 발견하게 된다. 용성은 '能見과 能現의 二가 곳 智相과 相續相이'라고 부연설명을 하고 있음을 보인다.

'제 2항의 삿된 집착을 다스리는 부분'인 제65에서 제68 과목까지는 원문에도 대치한다는 의미가 있지만 용성이 '이 사람을 어떻게 고칠까'라는 부연을 하여『대승기신론』번역에 담긴 용성의 의중을 느끼게 한다.

이러한 '생략과 부연'에 대한 고래의 관점을『書狀』의 용례를 통해 살

之不同者。蓋以體具不變隨緣之義故也。以不變故。非生非滅。離相離名。…以隨緣故。依正因果。唯心轉變。德相報用。隨業現前。…蓋以眞如是全生滅之眞如。生滅乃全眞如之生滅."

39) 眞界, 위의 책, p.339c. "此非算數之一。爲破諸數。彊言一耳。以一法性總攝萬法。故云大總相法門."

40) 眞界, 위의 책, p.342c. "蓋智相於諸法上任運分別。相續則念念分別無有間斷。此二卽住著外境。以法執堅住。故名爲住。能見能現之二。卽不了二相無體。住於見相耳。今始覺覺其動念之上。四種住相。本無自性。則其四相隨照俱亡."

펴보자. 孫知縣이 보내온 『금강경』 수정본에 大慧는 청량의 예를 들면서 다음과 같은 지적을 했다.

> 청량도 또한 성스런 스승이셨지만 부연이나 생략을 할 수 없었던 것은 아니나 감히 경전의 끝에 쓴 것은 법을 아는 사람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41]

용성이 마명의 『대승기신론』 자체에 '부연과 생략'을 한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 그러나 용성이 직접 괄호 안에 '註' 처리를 한 경우들을 보면 단순히 『대승기신론』을 번역만 한 것이 아니라 『대승기신론주해』를 낸 것으로 보여진다. 해서 '부연'된 부분은 괄호 처리하고, '생략'된 부분을 복원시킨다면 용성본 『대승기신론주해』로 문제가 해소될 것이다. 용성은 자기의 의중을 곁들인 『대승기신론주해』로 일제 강압기에 처한 중생들의 무명을 타파하고자 한 것이다.

Ⅴ. 結語

지금까지 살펴 본 '『대승기신론』 번역의 제 문제'를 정리해보자.

용성본 『대승기신론』의 과목은 전부 百個의 科目'인데 '第六'이 두 번 중복되어 '第九十九'로 끝이 나 있다. 교정을 제대로 하지 않은 단순한 실수이나 눈에 띄게 드러난다.

또한 과목과 관련있는 오류로 '顯示正義'가 있다. 이 부분은 '제3절 해석하는 부분'의 2/3에 해당하는 분량이며, 『대승기신론』 전체의 1/2이

---

41) 淸凉, 『大慧禪師語錄』 (『대정장』 47책 940b). "淸凉亦聖師也 非不能添入及減削止敢書之于經尾者 識法者懼也."

다. 해당되는 용성의 백개 과목은 제5조부터 제62조까지로 역시 절반 이상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용성은 이 '顯示正義'를 '三者난 道相을 發趣함을 分別하야 正義를 顯示함이니라'라고 하여 제3항 分別發趣道相에 연결했다. 백개의 과목만으로 나열시킨 폐단이라고 할 수 있다. '서분, 정종분(제1부 인연 부분 등), 유통분' 등 고래의 정통 분류법과 함께 배치하면 오류도 없애고 전체 단락의 이해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앞서의 제3항은 '도에 나아가는 모습을 분별함'이라고 풀이해야 할 것이지만 '道相을 發趣함을 分別하야'라고 오역했다.

과목 중 11. 明心生滅義이 용성본에는 '明生滅心義'로 잘못 기재되었다. 53의 '明染斷不斷義'의 경우에는 '淨'이 누락되었다. 59. 亦顯法身離於用相을 又現法身離於用相'으로 변용한 경우도 있었다.

과목에 이어서 『대승기신론』 본문과 관련된 내용을 보자. 용성의 경전 번역에 대한 특징은 '글뜻을 부루어 번역하기도 하고 번만한 것을 삭제하고 간단한 뜻으로 번역하기도 하고'라는 것으로 곧 '부연과 생략 및 축약'이다.

우선 제Ⅰ장 서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용성 번역본에서 생략되었다.

또한 제5 "일심법을 의지하여 [누락: 두 가지 문이 있다. 무엇이 둘인가? 첫째는] 심진여문과 [둘째는] 심생멸문이 있다."의 경우에서처럼 본문에서 상투적으로 생략한 부분들이 많다.

더불어 제5, 6, 16 세 과목 본문에서는 『대승기신론찬주』의 내용을 『대승기신론』과 구분없이 부연했다. 용성이 의거한 진계도 번다함을 없앤다고 했지만 기존의 '소'와 '기'를 회통하여 새로운 『대승기신론찬주』 저술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이지 『대승기신론』의 수정본을 낸 것이 아니다. 심지어 "청량도 부연이나 생략을 할 수 없었던 것은 아니나 법을 아는 사람들을 두려워했기에 감히 경전의 끝에 썼다."고 했지 않은가.

일제 강점기에 출간된 용성본 『대승기신론』이 '생략과 부연'의 집필로 『대승기신론』 자체에 손을 된 것은 큰 문제점으로 독자들에게 혼선을 초

래할 소지가 다분하다. 그러나 이 '생략과 부연' 부분을 괄호로 처리하여 구분하고, 용성본 『대승기신론주해』라고 한다면 문제가 해결이 될 것으로 보인다. 용성은 단순히 『대승기신론』을 번역만 한 것이 아니라 『대승기신론주해』를 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주제어 : 百個의 科目, 顯示正義, 『대승기신론찬주』, 정통 분류법, '생략과 부연'

Abstract

Problems in translation of Mahāyānashraddhotpāda-shāstrahe

Ven. Hyun-suk, Jin-Hyeon Kim

Prof, Haeinsa Saṅgha College / Asari Professor the Jogye Order

The Yongseong-version Mahāyānashraddhotpāda-shāstra contains total 100 subjects, of which "No. 6" is repeated twice, which means the count of its subjects ends at "No. 99." It is a simple mistake of proofreading, but it sticks out.

Another error related to subjects is "Hyeonshijeongui of Chapter 2, Section 3, Paragraph 1." Arguing that "Third, one can see the right meaning by distinguishing the path toward truth," Yongseong connected Paragraph 3 to "Bunbeolbalchuidosang." It was the evil of listing only the 100 subjects on his part. One can get rid of errors and promote the understanding of the whole paragraph by placing it along with the old legitimate classification method. Paragraph 3 should be interpreted as "distinguishing the aspect toward truth," but it was mistranslated as "distinguishing the path toward truth."

Let's move from the subjects to the content related to the main body of Mahāyānashraddhotpāda-shāstra. Yongseong's scripture translation is characterized by "amplification, omission, and abbreviation." He amplified the content of Mahāyānashraddhotpāda-shāstra-chanju in the main bodies of Subject

No. 5, 6, and 16 without distinguishing it from that of Mahāyānashraddhotpāda-shāstra.

The Yongseong-version Mahāyānashraddhotpāda-shāstra published during the Japanese rule has a huge problem of touching Mahāyānashraddhotpāda-shāstra itself through "omission and amplification" writing, thus being very likely to confuse readers. However, it can be solved by putting the parts of "omission and amplification" in a parenthesis and calling it the Yongseong-version Mahāyānashraddhotpāda-shāstra-commentary. It can be understood that Yongseong did not just translate Mahāyānashraddhotpāda-shāstra but published Mahāyānashraddhotpāda-shāstra-chanju.

Key words : 100 subjects, Hyeonshijeongui, classification method, "omission and amplification", Mahāyānashraddhotpāda-shāstra-chanju

* 참고문헌

『빈가대장경』 157책.
『가흥대장경』 19책
淸凉,『大慧禪師語錄』『대정장』 47책
馬鳴,『大乘起信論』『대정장』 32책
眞界,『大乘起信論纂註』『속장경』 45책
喩昧菴, 新續高僧傳, 臺北: 琉璃經房, 民國56[1967]
聖嚴法師,『明末佛敎硏究』(台北: 東初出版社, 1987).

경전중간사업회편,『한글화엄경』4 (서울: 경인문화사, 1970).
백상규역,『大乘起信論』 권1, (서울: 대각교중앙총본부, 1930년),
용성진종,『조선어능엄경』(서울: 대각회출판부, 1990).

김광식,「대각교의 조선불교 선종총림으로의 전환」,『용성조사와 고암대종사의 생애와 사상』, (서울: 대각사상연구원, 2013).
_____,「백용성의 불교개혁과 대각교운동」,『대각사상』3, (서울: 대각사상연구원, 2000).
보광,「용성선사의 역경사업이 갖는 현대적 의의」『다보』 6 (서울: 대한불교진흥원, 1993).
한보광,「백용성스님의 역경활동과 그 의의」,『대각사상』5, 서울: 대각사상연구원, 2002.
_____,「백용성스님의 삼장역회의 설립과 허가취득」,『대각사상』9, 서울: 대각사상연구원, 2006.

논문투고일: 2012.10.11. 심사완료일: 2012.11.25. 게재확정일: 2011.12.24.